

NEWS 한국가톨릭의사협회

전국 교구 회장단 회의

한국가톨릭의사협회(회장 조건현 교수)의 전국 교구 회장단 회의가 지난 12월 1일에서 2일까지 대전 유성 아드리아 호텔에서 개최 되었다.

대표담당사제인 이재돈 세례자요한 신부와 조건현 회장을 비롯한 중앙임원 4명과 8개 교구에서 17명, 총 23명이 참석하였으며 회의내용은 ▲2012년도 회무 및 재무보고 ▲2012년도 교구 가톨릭의사회 활동보고 ▲협회지 발간 및 2013년 인천교구 가톨릭의사회 주관의 총회 및 피정(3월 16일~17일) 준비사항을 점검하였다.

임원 신년모임

한국가톨릭의사협회는 1월 17일 임원 신년모임을 '최수사'에서 가졌으며 2013년도 활동을 위한 힘찬 기약을 했다.

NEWS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전국 가톨릭병원 간호수도자 연수



2월 1일에서 3일까지 가평 계성 푸른누리 수련원에서 전국 가톨릭병원 간호수도자 연수에 64명이 참가하였다.



첫째 날 정화의 날, 추억의 영상과 함께 말씀의 전례가 시작되었으며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회장이신 채계순

수녀의 환영 인사가 이어졌다.

각 병원 소개가 순천, 포항, 창원 등에서 올라오신 수녀들

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밤 8시부터는 '가톨릭병원의 영성과 간호'라는 주제로 6개 병원의 발표가 있었다.

▲서울성모병원 영성간호(Spiritual Care Leadership Program) ▲의정부성모병원 공감간호 ▲부천성모병원 맞춤간호 ▲인천성모병원 점성간호 ▲여의도성모병원 섬김간호 ▲성바오로병원 Exellent C.A.R.E. ▲준비 중인 성빈센트병원의 느낌이 좋은 간호. 이 모든 것은 환자들을 연민하시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당신의 또 다른 간호의 이름이다.

수녀가 간호사이자 관리자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분께서 살아내셨던 뒀! 십자가 지고 앞장 서 가셨던 리더로서 삶의 모범이셨던 그 분, 살아계실 때 험난하고 수난 당하셨던 그 고통의 자리, 환자들의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지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특별히 지금 고달픈 일반 간호수녀들에게 힘이 되고 수도회의 영성을 현장에서 펼치고 있지만 체계화하지 못하는 수녀들에게는 힘이 되었다.

둘째 날은 봉헌의 날.



2월 2일 미사는 남상근 라파엘 신부가 봉헌해 주셨다. "선물은 최고를 드리는 것이 아닌 최선을 주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느님의 차지가 되도록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느님이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없애라고 하셨다. 때마침 주님 봉헌 축일이라 수녀들은 3대 서원과 공동생활 등이 쓰여진 등과 각각의 초를 제대 앞에 봉헌하며 서원을 새롭게 갱신하는 뜻 깊은 미사였다.

이어 남상근 신부의 '축성 생활과 새 복음화'에 대한 강의에서는 신앙의 해 선포와 연결하여 말씀해 주셨다. 화두인 '새로운 복음화'는 세상 위기 속에 교회 공동체의 종교적 무관심, 세속주의를 극복하는 새로운 열정, 새로운 방식, 새로운 표현으로 질적인 교회로서 새로운 복음화, 신앙의 회복을 위해 수도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찰하기에 충분한 강의였다. 이후 그룹 나눔과 법정스님의 출가에서 다비장 입적까지를 다큐멘터리로 다룬 "의

자"를 감상하였다. 무소유의 스님 모습에서 청빈을, 한 줌의 재로 날리는 먼지와 흙으로 돌아가는 삶에 대한 순명과 겸손을, 부처님에 대한 실천의 삶에서 하느님의 정결을 발견하는 숙연하고 가슴 뭉클한 시간이었다.

잠간의 휴식 후 유준희 강사의 운동 심리치료로 새로운 삶의 퍼포먼스와 몸 살리기 프로그램인 스트레스를 확~날리는 시간이 이어졌다. 저녁 7시부터는 친교의 시간으로 각 병원별 장기자랑이 계속됐다.

파견의 날인 주일에는 가평 수련원에서 가까운 수도원인 '성마리아와 열두사람공동체' 총원장인 김기화 신부의 주례로 미사가 봉헌되었다.

각자에게 박수 치며 서로를 격려하고 받은 은총의 일부라도 소임지에 돌아가 직원들에게 함께 은총을 나누는 사랑의 간호수도자들이 되길 빌어본다.

제35회 정기대의원 총회, 전국이사회, 피정 개최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협회장 채계순 수녀)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제35회 정기대의원 총회,

제53회 전국이사회 및 피정을 2월 16일에서 17일까지 1박 2일 동안 진행하였다.

“새로운 복음화와 간호”라는 주제로 전국 13개 교구 가톨릭간호사회 회원 110여 명이 참가하였다.

제53회 전국이사회는 13개 교구 회장 및 중앙임원들 총 28명이 참석하여 ▲2013년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크로아티아 자그레브(Croatia Zagreb)에서 “Protecting Family Life :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Nurses and Midwives”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제16차 세계CICIAMS 참석 건 ▲전국 가톨릭병원 간호수도자 연수 진행 일원화 건 ▲여성포럼 순회강연 건 ▲해외의료봉사 활동 지원 건을 논의하였다. 공지사항으로 올 11월 2일에서 3일까지 음성 꽃동네 영성원에서 청주교구 가톨릭간호사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전국피정을 위해 청주성모병원 간호부장 김복연 수녀님의 말씀도 있었다.

작년 9월 이후 공석이었던 본 협회 대표담당자제로 학교법인 보건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이경상 바오로 신부가 결정되었다.



구속주회 한상우 바오로 신부의 특강은 웃음 넘치는 활력의 시간이었다.

신부님께서서는 매 순간 시를 낭독하시며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가? 삶에서 가장 값진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신앙은 나의 여정을 감사하는 것이며, 무소유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셨습니다. “구멍 뚫린 손이 부활을 얘기하며..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이 평화다. 또 이품만이 아픔을 위로하는 신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일 새벽미사는 서울성모병원 영성부장인 김병훈 신부의 주례로 봉헌하였다.



총회에서는 2012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와 2013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2012년 한 해 동안

의 활동을 동영상으로 시청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이어진 시상식은 ▲우수교구상에 제주교구 가톨릭간호사회(회장 김정실) ▲특별상은 대구대교구 가톨릭간호사회(회장 송경옥) ▲공로상은 대전교구 황관옥, 수원교구 김은실, 춘천교구 조봉애, 원주교구 심애영 님께서 수상하셨다.

우수교구상의 포상 기준은 ①전년 대비 회원 수 증가, ②본회 행사 참여율, ③사업 활동 보고(특별 사업 포함)이며, 전년도 전국 피정을 주관한 교구는 특별상을, 공로상은 교구 회장 임기가 끝나 물러날 때, 포상하기로 함에 교구에서 신청을 한다.

총회에 앞서 1월 14일 자체감사가 성바오로병원 간호부 회의실에서 있었다.